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헤덕왕사 소현 (慧德王師 韶顯: 1038~1095)

고려불교문화 전성기 이끈 왕사

고려 전·중기, 법상종의 흥성(興盛)은 이 시기 유력한 세가 중의 하나였던 경원 이씨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자연(李子淵; 1003~1061)은 경원 이씨 세가의 대두와 법상종 흥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1052년, 이자연은 그의 딸 셋을 문종에게 시집보낸다. 인예태후(仁睿太后)와 인경현비(仁敬賢妃) 그리고 인절현비(仁節賢妃)가 그들이다. 특히 인예태후는 순종과 선종 그리고 숙종을 낳았으며, 인종에 이르기까지 왕들은 모두 인예태후의 혈통이 된다. 한편으로 이자연은 불교세력을 장악하는데 크게 신경을 썼는데, 헤덕왕사(慧德王師) 소현(韶顯: 1038~1095)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고, 손자 세랑(世良)은 현화사(玄化寺)에, 증손자인 의장(義莊)은 현화사에 있으면서 법상종(法相宗)의 세력을 장악했다. 이처럼 경원 이씨는 왕실과의 인척관계, 그리고 당시 가장 강력한 불교세력 중 하나였던 법상종 세력을 장악함으로써 고려의 최고 문벌로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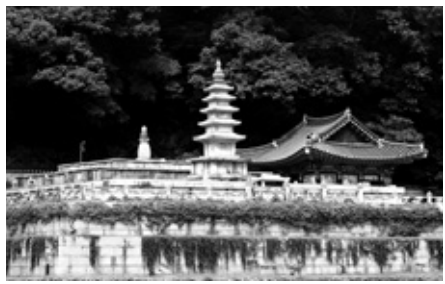
조선말 세도정치와 이 시대 특히 문종대의 정치상황은 확실히 다른 바가 있다. 그것은 왕실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문종은 송의 사신에게 “고려는 이미 모

든 것을 갖췄으니 더 이상 중국의 문물은 필요 없다”고 말할 만큼, 고려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일궈냈던 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문종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에 부상시킨 인물이 또한 이자연이기도 했다. 사실은 강력한 문종의 왕권 아래 경원 이씨 세력이 성장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헤덕왕사 소현은 사사롭게는 문종의 처남이며, 이자연의 아들이고, 문종의 비인 인예태후의 오빠가 되며, 대각국사 의천의 외삼촌이 되는 셈이다. 법상종과 귀족문벌 세력을 당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소현 스님은 11세(1048)에 해안사(海安寺)의 해린(海麟) 곧 지광국사를 찾아 은사로 출가하게 된다. 출가한 이듬해에 복흥사 관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24세였던 1061년(문종 15년)에는 왕륜사 대선장에 참여해 단번에 대덕법계를 품수했다.

소현 스님은 문종 33년(1079)부터 왕명을 받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다. 처남매부 지간이라는 문종과 소현 스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스님의 선택은, 당시 법상종 사원의 분포를 볼 때 특별한 선택이라 하지 않



전북 김제 금산사 방등계단. 소현 스님은 문종 33년(1079)부터 왕명을 받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다.

고려 법상종 흥성, 경원 이씨 덕분 세 딸 문종에게 시집보냈던 이자연 경원 이씨 가운데 결정적 역할해 헤덕왕사 소현은 이자연의 아들

을 수 없다. 곧 당시 법상종의 대표적 사원은 현화사를 비롯한 개경 소재 및 개경 인근의 사원과 원주의 법천사 등이었는데, 전주의 금산사를 택했기 때문이다. 금산사는 본래 신라 중대에 진표가 크게 중창했던 법상종 사원이었지만, 이즈음에는 그리 유력한 사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현 스님은 법상종 세력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본래부터 법상종과 인연이 있었

던 금산사에 주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여하튼 이 시기에 법상종은 종파로서의 체계를 정비하는데, 소현 스님이 주도해 건립한 그의 스승 지광 국사 해린의 탐비 비음(禪陰)에는 1380명에 이르는 문도가 소현 스님을 필두로 하여 승계 순서에 따라 기록되고 있다. 이것은 법상종의 흥성기를 이끌었던 스승 지광 국사의 탐비 건립을 계기로 삼아 대대적으로 교단의 조직을 정비했던 결과로 생각된다.

교단의 조직을 정비했다는 것은 스님의 비문에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본종(本宗, 법상종)의 모든 사찰에 매년 2회 법회를 연례화했다. 뛰어난 화가를 모아서 석가여래의 탱화와 현장(玄奘)·규기(龜基) 두 스님과 해동의 여섯 조사 등의 영정을 한 폭에 모두 그려서 각각 그 절에 봉안했다”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해동의 여섯 조사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비문 중의 언급을 통해서 원효 스님과 태현 스님이 여기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각지의 종파에 소속된 사찰에 법상종 조사들의 영정을 봉안했다는 것은 종조(宗祖) 신앙에 의해 종파의 결속을 도모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화엄종의 조사 묘에 상인(明惠上人) ㉔

말법시대에 보리심을 일으키다

“근래 스님 한 분이 한 권의 책을 지었다. 이름을 <선택본원염불집>이라고 한다. 경문을 어지럽히고 여러 사람을 속인다. 왕생의 행으로써 종(宗)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왕생의 행을 방해한다... 첫째는 보리심을 버리는 과실, 둘째는 성도문을 원수에 비교한 과실이다.”

일본 중세 초기에 화엄사상을 계승한 묘에 상인(1173~1232)이 정토종을 개창한 호넨[法然]을 비판한 <최사론(唯邪論)>의 내용이다. 묘에는 호넨이 왕생정도를 위해 정명만을 주장하며 지계, 독송, 보리심 등 제행을 부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이 책을 지었다. 정토세계에만 안주하도록 하는 말법시대야말로 보리심을 일으켜 불법을 바로세우는 것이 참된 불제자라고 역설했다.

중세 신불교의 조사들이 불법승 각각에 바탕한 종파불교를 형성해가는 상황과 더불어 묘에 또한 전통적 통불교의 입장에서 불법의 진정한 존재 의미가

일본 중세 초 화엄사상 계승해 정토종 개창한 호넨 상인 비판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승려 중 한 명이었다.

묘에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교토 북부의 신고지[神護寺]에서 숙부를 사사하고, 16세에 토다이지[東大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구사론, 진언밀교, 화엄 등을 두루 배웠다. 21세 때 국가 법회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둔세승으로 평생을 일관했다. 34세(1206)에는 교잔지[高山寺]를 개창했다. 그는 특히 신라 원효와 의상을 화엄종 조사로 극진히 존경해 두 사람에 대한 전기와 일화를 그린 <화엄연기>(국보)를 남겼다.

묘에는 황위계승에 막부가 영향력을 갖게 된 조큐[承久]의 난(1221) 때 패배한 고토마 상황[後鳥羽上皇]쪽 사람들을 숨겨줬지만 오히려 승리한 막부 집권자들을 감복시켰다. 막부 집권자들이 불법의 대치대비 정신을 실천한 그를 존경하게 된 것이다.

이후 막부의 정치사상이 담긴 통치법령인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 제정의 기초가 된 도리(道理)사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중고적 정열에 불탄 묘에는 31세 때



묘에 상인 수상좌선상(樹上坐禪像), 교잔지(高山寺) 소장, 국보

부터 인도로 직접 건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적을 순례할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병이 나기도 했지만 일본을 떠나면 일본인들이 불법의 존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묘에는 비록 인도에는 못 가지만 한 장의 종이에 <인도행정기>를 남겨, 인도까지의 거리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

묘에는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는데, 석가에 대한 강한 신앙을 바탕으로 열반·나한·사리·유적 강식(講式)을 지어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 이 4강식은 석가가 열반하자 제자들이 비탄에 잠겨 울면서 사리를 서로 나누어 소중하게 보존했다는 불전에 기반해 묘에가 극적으로 재구성한 의식집이다.

당시의 농민, 무사 등 남녀노소가 석존의 제세시대를 그리워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삶을 불법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매년 2월 15일 열반회에 석존의 열반상과 16나한 등을 그린 그림을 걸어놓고 그가 스스로 지은 표백문(表白文)을 읽으며 이 4강식을 행했다. 묘에 상인은 석가세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 나머지 몸을 떨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수행에 보탬 되도록 마음 써주시던 자상한 스님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한 벽안(碧眼: 1901~1988) 스님은 경봉 스님의 첫 번째 제자이다.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37세에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내원사 선원에서 3년간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종회의장과 조계종 원로를 지내고 선비의 모습으로 후학들을 가르쳤다. 벽안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처님 태양이 더욱 빛남이 어찌 금일의 이 총림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금년 겨울에는 용맹정진을 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코저 하오니 멀리서 가오 잊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가불비수구(餘閑不備手口)하옵니다.

병술년(1946년) 10월 결제하는 날 법인 합장”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부시작 전 은사스님께 인사할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답장은 아니지만 경봉 스님이 벽안 스님에게 보낸 내용은 이렇다.

“적조하던 차에 편지를 받아보니 기쁘고 기쁘네. 서울과 통도사 두 곳의 실지 사정은 참으로 가탄(可歎)을 금할 길 없네. 글 가운데 몸이 점점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연민스럽기 그지 없네. 이날 도리는 본래 한 물건도 없고 선악도 없으며 인과도

없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속세(俗世)의 업이 있는 법이라서 약으로써 다스리기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자면 두 가지 길이 있네.

첫째는 심령으로 직관해서 치료하는 법과 둘째는 성인의 가피를 입어서 치료하는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서 병의 뿌리를 뽑기를 바라오. 만약 큰 신심이 아니거나 큰 용맹스러운 힘이 아니면 병마를 쫓아버리기 힘이 드니 누누이 권하고 비유를 이야기하니 심본 참오삼아 실행함이 어떠한가? 구 10월 6일 사부서”

또 다른 편지에도 있다. 통도사 주지를 맡은 벽안 스님에게 법당에서 기도하는 스님은 하루에 네 번은 기도를 정성껏 하도록 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은 흰 쌀밥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를 친절히 설명

하셨다. 또 다른 편지의 한 부분은 이렇다.

“통도사는 자고로 강사 대접이 부족하다. 현재 운허(耘虛: 1892~1980)강사 스님 같은 이를 만나기 어려운 일이니 일체 수용을 잘하여 주고 반찬을 학인과 같이 하여주시 말고 특히 밥 한 그릇 잘 먹도록 잘하여 주어야 한다. 삼시 밥만 바라보고 있으니 매일 좋은 과자 두근과 과실 등도 간간히 사서 주는 이것이 사람을 위하는 일이다.”

통도사의 분위기를 잘 알고 어떤 곳에 배려해야 되는지 소상하게 가르침을 준 내용은 현재까지도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가르침이라 생각된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함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 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뚝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환경유해물질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철산 명절 등 각종 행사상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